



활동1

- (1)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.
- (2) 널빤지를 널판지로 잘못 쓸 뻔했습니다.
- (3) (예시 답안) 주꾸미를 쭈꾸미로 잘못 썼던 적이 있습니다.

활동2

(예시 답안)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어.

활동3

꼴불견

꼴불견

뜻: 하는 짓이나 겉모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림.

깍뚫하다

깍뚫하다

뜻: 예의범절을 갖추는 태도가 분명하다.

넌즈시

넌지시

뜻: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.

따리

또아리

뜻: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.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. 또는 그런 모양.

활동4

(예시 답안)

낱말	내가 만든 문장
꼴불견	새치기 하는 저 사람은 꼴불견이다.
깍뚫하다	손님을 깍뚫하게 대하다.
넌지시	넌지시 바라보다.
따리	구렁이가 따리를 틀고 있다.

활동5

(예시 답안)

잘못 쓴다고 생각되는 말	국어사전에서 찾은 말
쭈꾸미	주꾸미

초생달	초승달
치솔	칫솔



## 헛갈리는 말

5~8쪽

### 활동1

- (1) 정후는 줄넘기 광고지를 보고 있고, 윤서는 물비누를 보고 있다.
- (2) '틀리다'와 '다르다'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/ '적다'와 '작다'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
- (3) (예시 답안) '가리키다' 와 '가리키다'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.

### 활동3

(예시 답안)

이름	헛갈리는 단어
홍길동	적다    작다
김철수	틀리다    다르다
이영희	가리키다    가르치다
박수진	조리다    줄이다

### 활동4

적게, 다르다, 가르쳐, 조리다에 ○표

### 활동5

(예시 답안)

낱말	내가 만든 문장
틀리다	수학 시험 1번 문제 답이 틀리다.
다르다	내 얼굴과 친구 얼굴이 다르다.
작다	내 동생 키가 나보다 작다.
적다	이번 달 용돈이 적다.
가리키다	친구가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키다.
가르치다	저녁에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다.
줄이다	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을 줄이다.
조리다	멸치를 간장에 조리다.

**활동6**

다르다 작다 졸이다 가르쳤다 조리다

다르다	틀리다	조리다
가르키다 (가르켰다)	가르치다 (가르쳤다)	가리키다 (가리켰다)
졸이다	적다	작다

**곱지 않은 말**

9~12쪽

**활동1**

- (1) (예시 답안) 곱지 않은 말을 사용했습니다.
- (2) (예시 답안) 욕설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
- (3) (예시 답안) 점심시간에 축구를 할 때 상대방 친구가 저에게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. / 욕을 들으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.

**활동2**

(예시 답안) 욕설은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전하는 데도 도움이 안 돼.

**활동4**

첫 번째 철수 표정: (예시 답안) 당황한 표정 또는 화난 표정

첫 번째 철수 말풍선: (예시 답안) 그럴 수도 있지. 너는 왜 욕을 하고 그러니?

두 번째 철수 표정: (예시 답안) 미안한 표정

두 번째 철수 말풍선: (예시 답안) 정말 미안해. 다음부터는 조심할게.

**활동5**

(예시 답안) 나는 어제 저녁에 친구에게 장난으로 욕을 한 적이 있어. 나는 장난친 건데, 친구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. 앞으로는 장난으로도 욕을 쓰지 않을 거야.

**활동6**

(예시 답안) 앞으로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며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할 것이다.



## 활동1

- (1) (예시 답안) 친구들이 가늠하는 모르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. / 친구들이 통신 언어를 썼기 때문입니다.
- (2) 섬, ○○, ㄴㄴ, 강
- (3) (예시 답안) 소외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.

## 활동5

- (예시 답안)
- 실천 사항 1: 줄임말을 쓰지 않는다.
- 실천 사항 2: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.
- 실천 사항 3: 때와 장소를 고려하여 사용한다.



## 활동1

- (1) 철희와 헤미가 어른들은 모르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.
- (2) (예시 답안) 네, 있습니다.
- (3) (예시 답안) 지난 주말에 친구 집에서 놀 때, 친구 어머니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 못 하신 적이 있습니다.

## 활동3

- (1) (예시 답안) 은어를 썼습니다. / 우리끼리 쓰는 말을 썼습니다. / 어른들은 모르는 말을 썼습니다.
- (2) (예시 답안) 어른들과 아이들이 대화가 잘 안 통할 것 같습니다. / 어른들이 아이들의 말을 이해 하지 못해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.

## 활동4

- (예시 답안) 우리끼리 쓰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.

## 활동5

- (예시 답안)

우리끼리만 쓰는 말	대신할 말 찾아보기	가장 적절한 말 선택하기
최애	정말 좋아하는 것 아주 아끼는 것 매우 사랑하는 것	정말 좋아하는 것
꿀잼	정말 재밌다. 아주 우스꽝스럽다. 매우 웃기다.	정말 재밌다.
인생샷	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 무척 소중한 사진 아주 잘 나온 사진	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



활동 1

- (1) ‘명소’라는 한자에서 온 말을 ‘이름난 곳’이라는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.  
 (2) 명소  
 (3) (예시 답안) 독서를 할 때, 한자로 된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.

활동 4

낱말	한/우	낱말	한/우
명소	한	이름난 곳	우
가면극	한	탈놀음	우
집	우	가옥	한
간식	한	새참	우
감사	한	고마움	우
잔반	한	남은 음식	우
얼마 동안	한	당분간	한
대하	한	큰새우	우
많이(크게)	우	대폭	한
가격	한	값	우

활동 5

(예시 답안)

한자에서 온 말	우리말
금일	오늘
익일	다음날, 이튿날
잉여	나머지
주시하다	눈여겨보다
용이하다	쉽다



## 활동1

(1) 빵과 망토

(2) (예시 답안) 텔레비전, 버스 등

## 활동2

(예시 답안)

다른 나라 말(외국어)	우리나라 말
오뎅	어묵
스시	초밥
홈페이지	누리집
셰프	요리사
내비게이션	길도우미

## 활동4

(예시 답안) 아름다운 우리말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 주기 위해서야.

## 활동5

다른 나라 말	우리 모듬이 바꾼 표현	국립국어원에서 순화한 표현
네티즌	생략	누리꾼
다크서클	생략	눈그늘
립싱크	생략	입술 연기
메신저	생략	쪽지창
캡처	생략	장면 갈무리
파이팅	생략	아자

## 보충

(예시 답안)

쿵푸 팬더

무술 하는 곰

인사이드 아웃

안과 밖을 뒤집다.

보스 베이비

우두머리 아기

업

위, 위로

몬스터 호텔

괴물들이 사는 집

스파이더 맨

거미 인간



활동 1

- (1) 동생은 ‘만큼’을 앞의 말에 붙여 썼고 오빠는 ‘만큼’을 앞의 말에 띄어 썼다.
- (2) (예시 답안) 뿐, 대로, 만한 등
- (3) (예시 답안)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으면 문장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활동 2

(예시 답안) 문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.

활동 4

이	만	큼		더		먹	을	게	.					
먹	을		만	큼		가	져	가	.					
네		뜻	대	로		하	렴	.						
하	고		싶	은		대	로		하	렴	.			
소	중	한		친	구	는		너	뿐	이	야	.		
너	와		나	는		다	를		뿐	이	야	.		
여	행	만	한		것	이		없	지	.				
그	곳	은		가		볼		만	한		곳	이	야	.

활동 5

(예시 답안) 누나만큼 열심히 공부한다. /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다. / 단지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.  
/ 건강만한 것은 없다.

활동 6

(예시 답안) 독서 감상문을 쓰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겠다.



## 활동 1

- (1) 쓰지 말아야 할 겹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.  
 (2) 동해입니다. 왜냐하면 동해 바다는 바다의 의미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 
 (3) 가로수 나무, 과반수 이상

## 활동 3

동해 바다 ×	동해 ○	가로수 나무 ×	가로수 ○
과반수 ○	과반수 이상 ×	과정 속에서 ×	과정에서 ○
농사 ○	농사일 ×	생일 ○	생일날 ×
국화 ○	국화꽃 ×		

## 활동 4

(예시 답안)

노모(○) / 늙은 노모(×)      여행(○) / 남은 여행(×)      기간(○) / 기간 동안(×)  
 부활하다(○) / 다시 부활하다(×)      고목(○) / 고목 나무(×)  
 철로(○) / 철로길(×)      당시(○) / 그때 당시(×)      몇 월(○) / 몇 월 달(×)  
 새해(○) / 신년 새해(×)      내면(○) / 내면 속(×)      백발(○) / 하얀 백발(×)  
 옥상(○) / 옥상 위(×)      누전(○) / 전기 누전(×)      난관(○) / 어려운 난관(×)  
 호피(○) / 호피 가죽(×)      며칠(○) / 며칠날(×)      호평(○) / 좋은 호평(×)  
 예견하다(○) / 미리 예견하다(×)      역전(○) / 역전 앞(×)





활동 1

- (1) 일상생활에서 높임 표현이 잘못 쓰이는 경우를 다룬 뉴스입니다.  
 (2)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는 상황입니다.  
 (3) (예시 답안) 어머니와 백화점에 갔을 때 점원이 제가 사려는 옷을 높여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.

활동 2

(예시 답안) 나는 부모님과 청소기를 사러 갔을 때, 점원이 “이 청소기는 7만 원이십니다.”라고 말했다. 청소기를 높여 말해서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.

활동 4

나왔습니다      커피입니다      입니다      이에요

활동 5

입니다      입니다      이에요      나온      이에요